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관련 경험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연 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관련 경험 분석

An Analysis of Guide Dog-related Experiences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202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연 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관련 경험 분석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연 우

이연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i
ABSTRACT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시각장애인의 보행	7
2. 안내견의 역사와 현황	8
1) 안내견의 역사	8
2) 안내견의 현황	10
3) 안내견 관련 법률	12
3. 안내견의 품종 및 양성과정	15
1) 안내견 품종	15
2) 안내견 양성 과정	16
4. 안내견과 파트너의 역할	21
1) 안내견의 역할	21
2) 안내견 파트너의 조건과 역할	22
5. 선행연구 분석	24
III. 연구 방법	27
1. 연구 참여자	27
2. 관찰	28

3. 심층 면담	30
4. 자료 분석	31
IV. 연구 결과	33
1. 안내견 이용의 기능 및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한 관찰 분석	33
2. 안내견 이용 경험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심층 면담 분석 ...	40
V. 논의	56
VI. 결론 및 제언	63
1. 결론	63
2. 제언	64
참 고 문 헌	66

표 목 차

<표 II-1> 안내견의 양성과정	17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27
<표 III-2> 안내견 이용의 기능 및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한 관찰 내용	29
<표 III-3> 연구 참여자A의 관찰 동선	30
<표 III-4> 연구 참여자B의 관찰 동선	30
<표 III-5> 심층 면담 질문지의 영역과 내용	31
<표 IV-1> 안내견 이용의 기능적인 면에 대한 관찰 분석	33
<표 IV-2> 안내견 이용의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한 관찰 분석	34

ABSTRACT

An Analysis of Guide Dog-related Experiences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Lee Yeon-woo

Advisor : Prof. Young-il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guide dog walking affects the walking and movement of blind people in terms of function by tracking and observing the typical daily routine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living with guide dogs, and analyzed the reactions of people around guide dogs. In add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is investigated how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guide dogs lead to changes in the way of life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analyzed whether they feel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and prejudice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sitive support for the walking and life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through the results.

For this study, two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who are currently using guide dogs based in Gwangju were observed and their daily lives were recorded as a video. Also,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experiences living with guide dogs.

The analysis result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who are partners with guide dogs trained through the guide dog training process, use the guide dog's functional aspects such as linear walking, direction change, obstacle avoidance, curb cognition, and intellectual disobedience to cooperate with guide dogs. As a result, public faciliti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become easier and more available, and the walking of blind people with guide dogs is safer, faster, and mobility is also improved.

Second, the blind perceive that walking with guide dogs leads a dynamic life while improving mobility, it is enrich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hobbies and social life. For this reason, walking with guide dogs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lifestyle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Third, there is a clear change in positive perception of walking guide dogs socially. Compared to the past, more basic information and roles about guide dogs are well-known, and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easily feel that the attitude and atmosphere toward guide dogs change positively. Furthermore, as interest in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increases, social perception changes are gradually taking place,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such aspects have positive effects on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using guide dogs living as members of society.

As described above, it was confirmed that walking using guide dogs is one of the walking method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such aspects have positive effects on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using guide dogs living as members of society. and reduce soci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In other words, walking a guide

dog can be a means of overcoming the disability of the visually impaired. Therefore, social support in various fields for walking guide dogs should be spared. Regular education or publicity should be provided to social facilities, and various related issues need to be exposed to social members to get their constant interest, and national support and system maintenance for dog training should be thorough to lay the foundation for overcoming the disability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각장애는 정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보행, 경험의 기회, 사회에 대한 적응 등을 제한한다. 특히, 주변 환경으로부터 시각 정보를 습득할 수 없고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이동의 제한이다. 그 이동의 제한은 시각장애인들의 경험과 사회 접촉의 기회를 제한하고 삶의 질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키며 생활 전반에 지장을 주게 된다(양승호, 2011).

Lowenfld는 장애에 대한 적응과 재활을 위해 이들의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조성재, 2013 재인용, p.161). 시각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환경적 장벽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보행에 대한 지원 연구는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법에는 보조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보행, 비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받는 안내 보행, 흰지팡이 보행,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보행, 그리고 안내견 보행이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은 안내 보행과 흰지팡이 보행이다. 최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보조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신체적인 면에서부터 사회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행에 대한 지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법 중 안내견 보행은 단순히 보행 기능으로서만이 아닌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안내견 보행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안내견을 통한 보행은 시각장애인들의 외출 빈도를 증가시키고, 시각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립심과 삶에 대한 책임감도 촉진된다고 한다(Sachs-Ericsson et al., 2002; Veevers, 1985; Whitmarsh, 2005; 정재영, 2009, 재인용, p.2). 또한 안내견 이용은 시각장애인의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의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정재영, 2009).

인간과 동물은 오래전부터 상호적이고 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다. 인간-동물 유대는 개인이 질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원을 경험할 때 생기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ill et al., 2020; 이은희, 2021, 재인용, p.3) 특히, 사회적 지지가 약한 사람의 경우 반려동물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지로 얻는 이점이 많다고 하였다(Pruchno et al., 2018; 이은희, 2021, 재인용, p.3).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은 사람에게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성까지 증대시켜주며,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안내견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정서적인 지원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기본적인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효과적인 보행 방법으로써 기대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관계가 보행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 관계임과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긍정적 상호 교감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이런 유대감을 기반으로 안내견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호전시키는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희, 2021). 따라서 안내견을 실제로 이용하

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토대로 안내견 보행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재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안내견의 이용 전후의 삶을 비교하였을 때,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이용 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안내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이용 상의 어려움, 그리고 안내견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시각장애인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안내견 양성 및 이용과 관련된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기에 안내견 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및 홍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안내견의 이용 실태와 사회적인 인식,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안내견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한 안내견, 시각장애인인 21대(2020년~현재)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화제였다. 국회법상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 제148조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들어 그동안 안내견은 한 번도 국회에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17대(2004년 5월~2008년 5월) 국회의원과 19대(2012년 5월 ~ 2016년 5월) 국회의원은 안내견 대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국회를 출입했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식품접객업소든, 모두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 「국회법」 제148조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란이 일자 처음으로 안내견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대형 마트나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안내견의 이야기가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

로 인식 변화를 조금씩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란들이 여전히 이슈화 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안내견을 대하는 태도는 그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선에 머물러 있는지, 희망이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안내견을 다년간 이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상대로 실제 생활에 대하여 추적 관찰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생한 경험을 탐구, 분석하였다. 그로인해 기능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에서의 변화, 사회적인 시각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 및 인식과 편견에 대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현재 안내견 양성 현황과 양성 과정이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여전히 실제 생활에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수가 많지 않고, 지역 특성상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안내견 활동의 기능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내견의 보행 및 장애물 인지 관련, 대중교통 등의 운송 관련 및 공공시설 이용 시 안내견의 기능 및 에티켓 관련 등의 역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기능적인 면이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안내견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분석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관련 경험들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더하여 안내견의 훈련, 협력관계, 안내견과의 생활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관련 경험을 분석하고 삶의 변화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알아보며,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은 보행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며,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안내견 이용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과 안내견 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길 안내를 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며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보조견을 의미한다. 리트리버 중 등 특정한 견종에서 선정되며, 생후 7주 이후 1년간의 사회화 훈련인 펠피워킹 과정을 통해 선발되고 이후 6~8주의 전문교육을 받아 파트너에게 분양된다. 안내견 표지 등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에서는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하고 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2) 안내견 파트너

안내견과 매칭(Matching)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하며, 안내견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성격, 직업, 걸음걸이(보폭, 속도), 건강 상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안내견을 선정하여 파트너가 된다. 안내견 파트너는 안내견과 함께 4주간의 교육과정을 받으며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3) 하네스

하네스(Harness)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서로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죽 장구인 유도 고리로 안내견이 보행 중에 착용하여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서로의 상태나 주변 상황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이용된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II. 이론적 배경

1.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각은 인간이 학습을 하고 환경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다. 시각은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 발달되어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물을 인지하는 작용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미용, 2002).

시각장애 발생으로 인해 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독립 보행이다.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는 보행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은 보행 곤란으로 인한 좌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김영일, 2010).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대한 어려움에서 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동의 제한이다. 일상생활 곳곳을 옮겨 다니는 일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면 일상생활 전반에 지장이 있다. 보행의 불편은 시각장애인들의 경험과 사회접촉의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행이 어려운 것은 경로의 파악이 수월하지 않고 이동 중에 안전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목표지점으로 향하는 경로를 과거의 경험이나 구두 설명에 의해 기억하여 결정하며, 진로의 안전은 대부분 흰지팡이나 안내견에 의존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차례 반복에 의해 익숙해진 경우에는 독립보행이 가능 하지만,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는 환경인지와 거리 측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다(임안수, 2010).

시각장애인이 사회 환경 속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보행의 제한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정위(orientation)와 이동(mobility)이다. 방향정위는 시각 장애인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신적인 과정을 가리키며 환경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수반하는 물리적인 과정이 이동이다.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위는 단순히 감각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인지적인 능력과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동은 시각장애인이 한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장소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품위 있고 독립적인 형태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시각장애인이 환경 내에서 이동의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신체적인 이동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각장애로 인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결과 방향정위가 어렵기 때문이다(김영일, 201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이동기술의 체계적인 지도와 연구,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행 보조 수단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안내견의 역사와 현황

1) 안내견의 역사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개는 깊은 유대관계 안에서 가장 친숙한 관계로 연결되어 왔다. 개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개는 주인의 생활 습관과 패턴에 따라 적응해가며 함께 생활하였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주인의 보폭과 걸음걸이 속도에 맞게 행동 습관을 변화시키며 인간과 함께하던 개를 오늘날의 안내견의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AD 1세기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된 로마 ‘에르콜라노’의 개와 시각장애인을 묘사한 벽화이며, 이 외에도 13세기 중국 족자화에 담긴 맹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와 함께 걷고 있는 ‘황하의 불’, 16세기 화가 틴토레트의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에 나타난 맹인과 개 등 오래된 그림이나 동굴 벽화 등에서 안내견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안내견 학교 이전에는 많은 자료가 발견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유석중, 2016).

안내견 학교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 중 화학무기의 일종인 ‘겨자가스’로 인해 실

명한 수많은 군인들을 위해 재활활동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 독일인 의사 Gerhard Stallin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근무하던 중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훈련을 받은 개가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지를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1916년 8월 Oldenburg에 최초의 안내견 학교가 설립되었다. 여기에서 셰퍼드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23년 독일 포츠담에 훈련센터가 세워진 게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의 시작이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독일의 안내견학교에 이어 전 세계 안내견학교의 확산에 기틀을 다진 것은 미국의 안내견학교의 등장이다. 미국의 Dorothy Harrison Eustis여사는 독일의 안내견 양성 시스템에 호기심을 느껴 수개월간 안내견의 역할, 양성방법 등을 연구하고 체험한 후 셰퍼드의 탁월한 능력에 매료되어 여러 가지 목적견으로 셰퍼드를 번식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The Saturday Evening Post지로부터 원고를 부탁받게 되었고, 개들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The Seeing Eye”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게 되는데 이 기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때, 이 기사를 본 미국의 시각장애인 Morris Frank라는 젊은 청년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Dorothy Harrison Eustis에게 자신을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시켜 달라는 요청의 글을 썼고, ‘버디’라는 안내견을 분양해 미국 최초로 안내견을 등록시켰다(한국 장애인 도우미견협회, 2021). 그 후 1929년 Morris Frank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안내견학교인 The Seeing Eye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러시아인 안내견 훈련사 니콜라스 라이아코프를 영국에 파견시켜 영국에서의 안내견 훈련학교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한국 장애인 도우미견협회, 2021).

영국의 체계적인 안내견훈련 시작은 1931년 Wallasey의 클리프 훈련센터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1년 레밍턴 스파에 있는 에드몬드스 콧으로 옮겨 이때부터 영국 안내견은 부흥기를 맞게 되었고, 여러 유럽 국가들도

안내견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다(임안수 외, 1999).

우리나라의 경우 50년대 전쟁 폐허국에서 6,70년대 급진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거친 결과 경제·문화적 부흥기를 이루는 21세기의 현대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농경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우리에게 개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는 친숙한 가축 이상의 개념은 아니다 보니 장애인의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견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즉, 우리나라의 안내견 역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물려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안내견 파트너는 임안수 전 대구대학교 교수로 197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셰퍼드 종인 안내견 ‘사라’와 귀국했다. 이후 미국 및 일본을 통해 안내견 분양이 몇 차례 있었으나, 사후관리 지원의 미흡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다 1992년 이삭도우미개학교가 설립되었고, 1993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전문훈련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안내견의 훈련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 양현봉씨에게 ‘바다’를 분양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안내견이 활동 중이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2) 안내견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32개 나라에 90여 개의 안내견 양성기관이 있고 약 2만 5천 마리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3,200마리가 안내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분양되고 있다. 세계 대표 안내견 관련 기관으로는 1989년 발족된 세계안내견협회(IGDF)로 현재 32개국 98개 기관 회원학교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영국의 레드딩(Reding)에 본부를 두고 있다. IGDF 발족과 안내견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계 안내견의 날’로 지정해 각국의 회원 학교들은 다양한 행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1994년

회원에 가입하였고 이후 1999년에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2002년 5월 세계 안내견 협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1) 국외 현황

국외의 안내견 현황으로는 영국 4,500여 마리, 미국 2,100여 마리, 뉴질랜드 270여 마리, 일본 140여 마리가 활동 중이며 이외 여러 나라에서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다. 국외의 안내견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영국의 GDBA(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로 1931년 설립된 안내견 협회이며 18개의 안내견학교가 지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톨게이트 하우스(Tollgate House)”라는 번식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안내견의 번식을 전담하고 있으며 영국 각 지역의 안내견학교로 강아지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1,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기증 받았다. 미국의 GDB(Guide Dogs for the Blind)는 미국 내 가장 큰 학교로 현재 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협력번식, 자견 및 종모견 기증 및 도입, 훈련사 교환근무 등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그 외 뉴질랜드 안내견학교는 1890년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설립된 왕립 뉴질랜드 시각장애인 재단으로 총 700여 두의 안내견을 배출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는 훈련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는 9개의 안내견학교 중 일본맹도견협회는 1967년 설립되어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연간 40여두 규모의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으며 안내견의 양성, 보급, 연구 외에 훈련사학교를 운영하며 보행지도사의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2)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약 70여 마리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안내견 양성 기관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가 있다. 대부분의 안내견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양성 및 분양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4년 세계안내견협회(IGDF) 회원에 가입한 이후 1999년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는 1993년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보건복지부 사업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으로 등록하였고 현재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안내견 등을 배출하고 있다. 2018년까지 36두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포함하여 307두의 장애인 보조견을 배출하였다(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2021).

3) 안내견 관련 법률

한국에서는 안내견을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보아 법률로 안내견의 위상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퍼피워킹중인 예비안내견도 포함된다(다음 백과사전).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48조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들어 안내견은 한 번도 국회에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17대(2004년 5월~2008년 5월) 국회의원과 19대(2012년 5월 ~ 2016년 5월) 국회의원은 안내견 대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국회를 출입했었다. 21대

국회에 와서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법」 제148조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란이 일자 처음으로 안내견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안내견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안내견이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안내견의 접근성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안내견 관련 법적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다(법제처, 2021).

(1)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건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내견의 품종 및 양성 과정

1) 안내견 품종

최초 안내견은 독일의 셰퍼드였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90%이상은 리트리버종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활동 보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격과 체력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아야하며 무엇보다 품성과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아야 한다. 주인이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한 곳으로 향할 때 안내견은 주인의 바짓 가랑을 물고 늘어져서라도 주인은 저지하고 압도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견은 덩치가 커야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안내견은 출입이 가능하고 입마개도 씌우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순한, 호감형인 외모를 갖는 게 안내견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그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안내견은 리트리버 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리트리버 중에서 라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가 안내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라브라도 리트리버는 뉴펀들랜드 섬의 해안 주변 차가운 바다에서 어망을 회수하거나 운반하도록 훈련되었다. 1903년 영국켄넬클럽에서 공인되었으며 현재의 이름은 1887년 맘즈베리 백작에 의해 붙여졌다. 짧고 조밀한 털과 근육질의 균형잡힌 몸매를 들 수 있다. 훈련이 쉽고 성실해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안내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키우기에도 적합하다. 골든 리트리버는 영국이 원산지로 조상은 러시아 카프카스의 목양견인 러

시아 트래커이다. 19세기 중엽에 스코틀랜드의 트워드마우스경이 세터와 교배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길은 황금색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로 이지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찬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긴 털과 함께 뒤흘에는 장식털이 나 있고, 성격이 온순하며 붙임성이 좋고 충성심이 강하며 지능도 높아 가정에서 일반 반려견으로 키우거나 안내견 등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다. 리트리버종은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사교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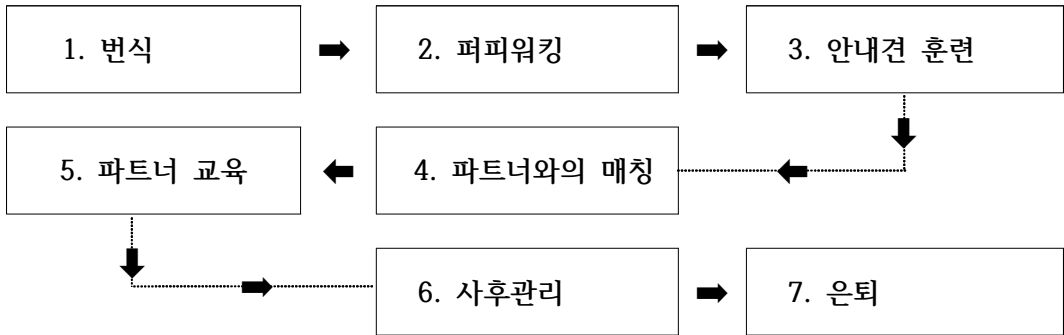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라브라도 리트리버종을, 한국 장애인 도우미 협회는 스탠다드 푸들이나 골든 리트리버와 스탠다드 푸들의 교배종인 골든두들을 사용하고 있다. 골든두들, 즉 푸들과 골든 리트리버의 혼종견을 안내견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 알리지를 가지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직모는 털 빠짐이 심하지만 곱슬모는 털 빠짐이 심하지 않다. 그런데 직모와 곱슬모 중에서 곱슬모가 우성 형질이기에 직모견과 곱슬모견을 교배한 경우 자녀 세대의 개체는 곱슬모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푸들도 외모가 순한 인상이면서 스탠다드 푸들의 경우 그 체격이 리트리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스탠다드 푸들과 골든 리트리버를 교배한 골든 두들도 안내견으로 꽤 쓰인다. 물론 스탠다드 푸들 역시 인상이 순하고 지능도 좋고 덩치도 큰 편이지만 힘은 그다지 센 편이 아니라 골든두들이 선호된다. 스탠다드 푸들은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져 대형견 중에서는 체고 대비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이다(나무위키, 2021).

2) 안내견 양성 과정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하는 만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관리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철저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 마리의 안내견이 탄생하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사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좋은 안내견을 양성할 수 있다. 안내견의 양성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준비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안내견의 양성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표 II-1> 안내견의 양성과정(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1) 번식

안내견으로 적합한 성품과 건강상태를 위하여 안내견학교에서 태어나는 강아지들은 엄선된 종견(Stud DOG)과 모견(Brood Bitch)으로부터 태어난다. 안내견의 종·모견은 품성과 혈통이 우수한 개들 중에서 선발되어지고 자연교배(Mating)에 의한 번식이 일반적이거나 때로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수한 안내견의 양성은 번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수한 종·모견의 관리 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태어난 안내견들은 생후 7주까지 안내견학교에서 관리되며 조기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2) 펄피워킹

생후 7주된 강아지들은 자원봉사자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사회화 과정을 거친

다. 이를 퍼피워킹(Puppy Walking)이라 하며, 자원봉사자들은 퍼피워커(Puppy Walker)라 불린다. 그 기간 동안 강아지들은 가정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우며 기본적인 복종, 배변 훈련을 하게 된다. 안내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극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에 퍼피워킹 과정을 통해 가정 안에서 바른 품행을 익히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퍼피워킹 동안 예방접종 및 기본적인 용품 등은 안내견학교에서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사회화 훈련과 사육관리 등에 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테스트를 받으며, 종견이나 모견의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받게 되기도 한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3) 안내견 훈련

1년 동안의 퍼피워킹을 마친 강아지는 안내견으로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종합 평가를 받고, 합격한 개들에 한해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안내견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안내견학교 이외에도 실제 생활공간이 될 도로, 건물,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보통 훈련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배변, 식사 등 기본 훈련을 포함한 기본 명령 훈련, 2단계는 새로운 환경 간 훈련, 3단계는 자체 주도력 및 반응성 임무 수행, 마지막 4단계는 집중력 강화 및 지능적 선택 등으로 구성된다. 훈련과정 중 지적 불복종훈련(Intelligent Disobedience)이 있는데 이는 장애물이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여 주인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훈련을 말한다, 안내견 훈련 방법에는 강압적인 통제나 체벌 없이 ‘클리커’라는 도구를 사용한 긍정강화훈련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진국 안내견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훈련법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여 훈련하고 있다. ‘클리커’라는 도구에서 나는 ‘딸

각' 소리를 칭찬으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훈련과정에 잘 순응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클릭커를 클릭하고 사료나 간식 등을 통해 보상하면서 스스로 어떤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훈련과정 속에서 사람과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고 안내견으로 적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내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들은 일반 가정에 반려견으로 분양되기도 한다.

(4) 시각장애인과의 매칭

안내견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성격, 직업, 걸음걸이(보폭, 속도),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안내견을 선정하는 것을 매칭(Matching)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개체의 특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고, 예비 파트너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매칭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안내견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내견과 예비 사용자에 대한 특징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5) 파트너 교육

시각장애인에게 가정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안내견이 선정되면 안내견과 함께 4주간의 파트너 교육을 받는다. 2주 동안은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의 관리를 위한 기초교육을 받고, 나머지 2주 동안은 시각장애인의 주거지와 주요 보행지역을 중심으로 현지교육이 이루어진다. 안내견이 주인과 함께 살아가게 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6) 안내견 활동 및 사후관리

안내견은 건강상태에 따라 통상 8~10년간 활동하게 되며, 이 기간에도 안내견 학교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내견의 건강상태와 보행상태를 체크한다. 매년 두 차례씩 건강, 보행, 파트너와의 유대 관계 등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파트너의 환경 변화, 안내견의 문제 행동 등이 발생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7) 은퇴

통상 안내견은 10세 전후에 안내견에서 은퇴하게 된다. 은퇴한 안내견은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위탁(은퇴견 홈케어)되거나 안내견학교로 돌아와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은퇴한 안내견의 파트너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안내견이 대체분양되며 물론 이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이렇게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억 원 정도 든다고 한다. 10마리의 안내견을 훈련시키면 3마리 정도가 합격하는데, 훈련과정에서 가정견으로 사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거나 타 임무에 적합해 보이는 경우에는 역지로 안내견 훈련을 지속하지 않는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위와 같이 한 마리의 안내견이 양성되어 시각장애인에게 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안내견이 충분히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의 지원군임이 틀림없다.

4. 안내견과 파트너의 역할

1) 안내견의 역할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둔 가구는 604만 가구로 국내 가구의 29.7%에 해당한다. 그 중 많은 반려인들이 그들의 반려동물을 친구와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안을 얻는 것에 비하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히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해주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을 감지하여 알리기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보조견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임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된 개를 말한다(다음백과사전, 2021).

안내견의 기능적인 본래 역할은 보행수단으로서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직선 보행’으로 혼자 힘으로 방향을 찾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앞쪽 방향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와 나란히 서서 전면을 향해 걸으며 다른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장애물을 피하며 길을 안내한다. 이 외에 각종 명령어와 방향전환, 목적지 인식, 장애물 회피, 차량인지 등의 수행능력을 익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건물의 입구나 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안내견의 파트너인 시각장애인들은 빠르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고, 보행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므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감각을 편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안내견은 기능적인 역할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

다.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독립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안내견과 함께 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보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독립성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다. 하지만 안내견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성을 증대 시키고 활동 범위를 극대화하며, 사회와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 생명체를 돌보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감정과 함께 책임감을 함양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게 안내견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유석중, 2016).

즉, 안내견은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안내견이 환영 받는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1).

2) 안내견 파트너의 조건 및 역할

(1) 안내견 파트너의 조건

안내견과 함께할 파트너는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내견의 행복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고 여러 번 면담을 거쳐 안내견과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한다. 안내견 파트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맹(중증), 시력을 이용한 보행이 불편한 저시력(경증) 모두 대상
- 나. 시각장애에 대한 자기 수용이 되어 있는 사람
- 다. 만 19세 이상의 안내견 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
(중복 장애인의 경우 별도 심사 필요)
- 라. 주택(아파트/빌라)·기숙사·직장 등 실내에서 생활 가능한 사람
- 마. 안내견과 지속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한, 일주일 평균 3~4군데 정도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
- 바. 흰지팡이 또는 잔존 시력을 이용하여 안내견에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보행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
- 사. 털 빠짐이 있으므로 건강(비염 및 알러지)에 이상이 없는 사람

(2) 안내견 파트너의 역할

안내견은 파트너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무조건 적으로 안내견에게 일방적으로 안내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이 분명하다. 안내견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유석중, 2016).

가. 관리

안내견의 분양을 고려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일이 관리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더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안내견 관리의 첫째는 목욕이다. 목욕은 2~3주에 1회 정도 실시하며, 기타 청결 관리를 위해서 외출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된다. 두 번째, 급식은 하루에 2회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사료를 주며, 수시로 물

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배변관리이다. 보통 안내견은 하루 4~6회 가량 소변을 보고, 하루 두 끼 식사 후 배변을 본다. 주인이 직접 정해진 장소로 가서 ‘빨리빨리’라는 명령을 내리면 1~2분 안에 배변을 한다. 이렇게 주인과 함께 배변을 하는 이유는 안내견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주인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오리엔테이션

안내견은 자주 가는 곳은 알아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스스로 모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상호작용에 의해 보행은 이루어진다. 안내견은 별도의 명령이 있기 전까진 직선보행을 하고, 방향 설정은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몫이다. 안내견 파트너 조건 중 흰지팡이 보행이 사전에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심리적 일관성

안내견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므로 파트너는 안내견을 대할 때 일관성 있는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있는 안내견이여도 파트너의 감정이 고르지 못하면 안내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안내견을 보살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선행연구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인공지능이나 인지시스템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었을 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보조도구로의 안내견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

한 상태이다. 추후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조도구의 실용화가 많이 기대되지만,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법 중 하나인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각장애인의 실제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정재영(2009)은 국내에서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48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이용 전후의 삶의 변화를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 탐색하였다.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이용한 후 흰지팡이 보행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보행보다 자유로운 보행을 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행빈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외출 빈도가 증가하였고, 안내견을 관리하면서 우울감이 낮아졌으며, 자립심과 자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 원인은 질적 연구로는 밝힐 수가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안내견 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정책적인 정비が必要하며, 국가적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정재영, 2009).

이은희(2021)는 현재 안내견 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안내견 보행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내견 보행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보행에 대하여 안전한 단독 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행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등의 유익성이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안내견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이것이 모두 분양 의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환경과 조건, 반려견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개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분양 의사 결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은희, 2021).

김영수 외(2021)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

여 시각장애인 603명의 자료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경우, 보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안내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타인의존도가 높은 경우와 차별당하는 경우에 안내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수에 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행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인 차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Li, Kou, Lam, Lyons 및 Nguyen(2019)는 시각장애노인 7명을 대상으로 안내견을 처음 사용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화 면접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책임감이 증가하였고, 일상 습관이나 일과가 바뀌었으며, 안내견과의 연대가 빨리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통합이 확대되었으며, 자율성이 신장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안내견 이용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주었고, 보행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내견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또한 안내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차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양성 과정에서의 지원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기능적인 면에서 느끼는 안내견의 이용의 장단점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차별,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과거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견과 파트너와의 관계 및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주민 반응 등을 살펴보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변화와 편견,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많지 않을뿐더러,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수는 더욱더 혼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관찰과 면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되었다.

1. 연구 참여자

광주광역시를 생활근거지로 두고, 현재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연구진행 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총 2명뿐이다.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참여자	성별	연령	동거가족 수	시력정도	안내견 이용기간	안내견 나이
A	남	40대	4인	전맹	25년	4살
B	남	30대	1인	저시력	2년	4살

1) 참여자 A

참여자 A는 안마사협회 소속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안내견을 이용하여 왔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1993년에 설립되고 1994년에 첫 안내견을

배출한 것을 생각해보면 거의 초창기부터 안내건을 이용해 온 우리나라 안내견 역사의 산증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안내견 양성 기관인 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에서 배출된 안내견도 이용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여러 마리의 안내건을 이용해 왔고 안내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갖춘 참여자이다.

2) 참여자 B

참여자 B는 30대로 안마센터를 운영하며 본인의 일을 갖고 있는 참여자로, 희미하게 형체정도가 보이는 저시력을 갖고 있다. 안내견은 2년 전부터 이용해왔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안내견이 첫 번째 안내견이다. 집에서 독립하여 동거가족 없이 혼자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이다.

참여자 A는 시력정도가 전맹이며 한쪽 귀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까지 갖고 있는 참여자로 25년 동안 안내건을 이용해 왔으며 여러 마리의 안내건을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반면, 참여자 B는 빛과 형체 정도는 보이는 시력을 갖고 있으며 안내견 이용기간이 2년으로 참여자 A에 비해 짧은 경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안내견이 본인의 첫 안내견이다. 경력의 차이가 큰 만큼 관찰하는 동안 안내견과의 협력관계의 정도, 기술, 안내견의 반응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심층면담에서 이용연수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참여 부분 등의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2. 관찰

이 연구는 평소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법 중 비참여 관찰법을 이용하였다. 비참여 관찰법은 비통제적 관찰의 하나로 관찰자가 국외자로서 조사 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법으로 연구자는 연구대상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국외자로서 관찰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법은 국외자의 입장에서 사회사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의 행동양식이나 규범, 성원의 내면까지 파악하는 데는 참여관찰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 있지만, 집단 내에서 일정한 지위나 역할을 점유하고 수행하는데 따르는 관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 관찰법이다(김응렬, 2001).

1) 분석 항목

비참여 관찰법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상을 추적, 관찰 및 촬영기록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 또한 관찰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III-2> 안내견 이용의 기능 및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한 관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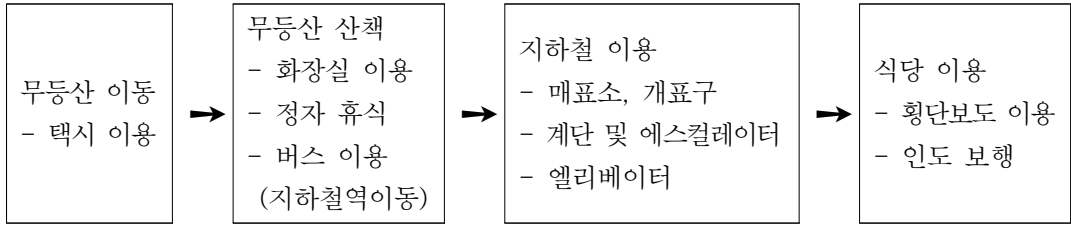
관찰 영역	관찰 항목		
안내견 보행 면	· 직선보행	· 방향전환	· 하네스 반응
	· 횡단보도 건너기	· 연석 인지	· 장애물 인지
	· 유혹 억제 및 집중력	· 지적 불복종	
공공시설 이용 면	· 버스 이용	· 택시 이용	· 지하철 이용
	· 목표지점 찾기	· 계단 이용	· 에스컬레이터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 약국	· 편의점
지역사회 주민 반응 면	· 거부	· 무관심	· 호기심
	· 간섭(방해)	· 격려	· 터치

2) 관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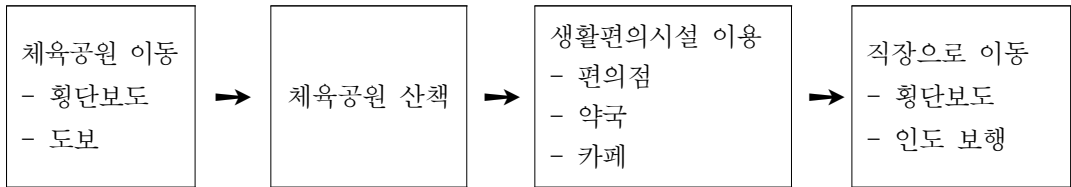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안내견과 함께하는 연구 참여자 2명의 일상에 대하여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8월 22일 사이 하루정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도 촬영하여 기록하고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촬영하였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안내견과 함께하는 연구 참여자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주민의 반응과 시선을 분리 촬영하여 2명이 동시에 관찰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관찰을 위한 동선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연구 참여자A의 관찰 동선



<표 III-4> 연구 참여자B의 관찰 동선



3. 심층 면담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 세계의 만남이다.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점과 관점 그리고 세계와 세계 사이의 작업이다. 따라서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캐내려고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열린 태도와 마음으로 묻고 답하는 해석적인 대화로서의 인터뷰를 지향한다. 참여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중국에는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질적 연구에서 면담이라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일 것이고, 연구 문제 풀이의 핵심일 것이다(전가일, 2021).

단기간의 관찰기록으로는 안내견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 2회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하여 안내견과 함께하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 측면에

서부터 심리적 측면까지의 다양한 삶의 변화와 경험, 사회에서 느꼈던 편견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이 면담을 위해 사전에 안내견에 관한 많은 정보와 사례를 미리 조사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 하였으며, 다양한 질문 내용을 계획하는 동시에 일과를 관찰하면서 생기는 여러 유동적 상황을 대비하여 비구조적 면담을 함께 사용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III-5> 심층 면담 질문지의 영역과 내용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안내견 분양	안내견 분양 동기, 분양 기관, 분양 훈련, 분양 후 적응 문제
기능 및 생활적 측면	안내견 보행 만족도 및 한계점, 외출 관련 경험, 보행 빈도 안내견 보행 전과 후의 변화, 여가 및 운동 생활의 변화
심리적 측면	안내견 이용 후 심리적 변화
사회적 측면	사회 참여도, 주변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선 및 반응

4. 자료 분석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과를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된 심층 면담의 내용을 전사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추적하면서 관찰한 일과 영상은 공간, 시간, 연구 참여자의 행동, 안내견의 행동, 연구 참여자와 안내견과의 관계,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후 자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코딩을 통해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된 관찰 영상은 안내견 이용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경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내용은 사전 기본 정보 수집 내용과 함께 일과 중 있었던 다양한 상황에서 도출되는 질문

등을 추가하고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점이나, 불편한 점, 상황에서의 개선할 내용 등을 연구 참여자와 대화 형식으로 시간대별로 전사한 후 범주화를 통해 주제를 도출하여 체계화하고 정리하였다.

위와 같이 관찰, 심층면담에 대한 전사기록과 범주화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하고, 지도교수와 관찰을 함께 진행했던 지인에게 읽어보도록 하여 관점을 다각화하려 하였으며 삼각 검증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안내견 이용의 기능 및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한 관찰 분석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험과 안내견 이용에 따른 삶의 변화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내견 이용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실제 안내견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관찰하면서 일과 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안내견 보행 면, 공공시설 이용 면, 지역사회 주민 반응 면으로 영역을 나눈 뒤 그에 따른 세부 항목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관찰 항목에 따라 빈도수를 조사하고 안내견의 기능적인 면이 잘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반응 면은 관찰하는 동안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어떤 반응이 많은 지 비율로 알아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 표<IV-1>과 같다.

<표 IV-1> 안내견 이용의 기능에 대한 관찰 분석

관찰 영역	관찰 항목	해당 빈도수	성공수행 빈도수	성공률	
안내견 보행 면	직선보행	47	47	100%	
	방향전환 및 하네스 반응	32	32	100%	
	횡단보도 앞 멈추기 및 건너기	14	14	100%	
	연석 인지	16	16	100%	
	장애물 인지	지상 장애물	0	0	
		돌출 장애물	19	19	100%
		움직이는 물체	15	15	100%
		인도의 전면을 막고 있는 장애물	4	4	100%
	유혹 억제 및 집중력	206	198	96.11%	
지적 불복종	2	2	100%		
공공시설 이용 면	운송수단 이용 (버스·택시·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엘리베이터)	승하차	15	15	100%
		에티켓	11	11	100%
	계단 이용	8	8	100%	
	목표지점 찾기	16	15	93.75%	

<표 IV-2> 안내견 이용의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한 관찰 분석

관찰 영역	관찰 항목	빈도수	빈도율
지역사회 주민 반응 면	거부 및 놀람	2	1.02%
	무관심	92	46.94%
	호기심	93	47.45%
	간섭(방해)	0	0%
	격려	9	4.59%
	터치	0	0%
관찰 빈도수 합계		196	

1) 안내견 보행 면

안내견 보행에서 가장 기본인 직선보행은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다음 방향 전환 시까지 계속되는 보행으로 단순히 일직선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장애물 등을 피하면서 방향 전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안전하게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하며 안내견 파트너의 방향 정위를 수월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이성진, 2013). 직선보행 관찰 결과 두 안내견은 다음 방향 전환이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총 47회 직선보행 구간에서 정확하게 100% 수행하였다. 인도나 공원, 무등산 등 산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목표지점 찾는 구간 등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파트너와 협력하여 직선보행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무등산 등산로 보행 시 좌측 보행을 하였고, 장애물을 피한 후에도 좌측으로 이동하여 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내견은 상시 하네스를 한 상태에서 보행을 해야 하며 파트너는 하네스를 이용하여 방향 전환이나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하여 안내견과 협력한다. 관찰 결과 안내견은 보행 중 장애물이 있을 때는 명령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틀어 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다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하네스를 당겨 이동하는 경우나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 후 나가기 위해 하네

스를 당기는 경우, 산책을 위한 직선보행을 하는 도중 정자에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자 방향으로 하네스를 당기는 경우 등 관찰하는 동안 총 32회의 방향 전환과 하네스 명령에 대해 거부 없이 32회 모두 하네스에 대해 완벽하게 반응함을 관찰하였다.

연석이란 보행의 안전, 노면배수, 시선 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식수대 등과 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연석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고 차도를 이탈한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환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음 백과사전). 연석에 대한 인지는 안내견 이용의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의 직선 인도가 끝나는 지점인 건물 목이나 각종 건물 등의 진입로에 위치하는 내림 연석에 이르면, 안내견은 그 연석 위에 정확히 정지해야 한다. 연석은 목적지 방향을 가기 위한 방향 전환 위치이며, 아울러 이는 사람이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함과 동시에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케 하고 또한 방향정위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이성진, 2013). 관찰하는 동안 횡단보도 앞, 인도가 끝나는 지점, 공공시설 입구나 계단 등에 위치한 연석에 도달하면 안내견은 잠시 멈추거나 파트너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총 44개의 연석 위치에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14번의 횡단보도 건너기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모두 멈추었고, 신호가 바뀌고 파트너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멈추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 14개 중 B 참여자의 생활권인 지역에서는 주택과 아파트의 밀집지역이어서인지 6개의 모든 횡단보도가 음성지원이 되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횡단보도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았고, 횡단보도 앞에 연석 설치도 되어있지 않아 미리 길과 횡단보도 위치를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게 위험해 보였다. 특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또한 많이 있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안내견 보행에서 장애물 인지는 4가지로 분류한다. 공중에 떠 있거나 걸려 있는

장애물로 안내견은 쉽게 통과할 수 있어도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지상 장애물,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형태의 돌출 장애물, 차량, 자전거, 유모차, 오토바이 등 예고 없이 움직이는 장애물, 인도 보행 시 진행하려는 방향이 장애물로 차단되어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인도의 전면을 막고 있는 장애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성진, 2013). 관찰 기록에 대한 분석도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지상 장애물은 관찰하는 동안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아 그에 대한 안내견의 행동은 분석할 수 없었고, 제일 빈도가 많은 경우는 돌출 장애물이었다. 산책로에 있던 벤치, 전봇대, 인도에 세워둔 자전거, 오토바이, 가로등, 쓰레기더미, 세워 놓은 간판, 인도 방향으로 열린 가게 문, 횡단보도 중간 공사 구간 등 보행 중 돌출 장애물은 총 19개였고, 모두 특별한 명령 없이 안내견은 스스로 돌출 장애물을 피한 후 보행을 진행하였으며 돌발 경우였던 횡단보도 중간의 공사장을 마주했을 때는 일단 멈춤을 시행 한 후 파트너의 명령에 따라 방향전환 후 보행하였다. 돌출 장애물에 대한 대응 경험은 많아보였고 그에 대한 대처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움직이는 장애물에 대한 안내견의 대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등산로 구간을 보행할 때 제일 많이 관찰할 수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많았고, 주말인 관계로 등산객이 많아 보행하는 동안 15대의 차량을 마주하였고 그 때마다 안내견은 잠시 멈춤을 통하여 파트너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방향전환을 통하여 차량들을 피하며 보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전면을 막고 있는 장애물 4회는 모두 인도 끝부분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었다. 모두 안내견은 보행을 멈춘 후 파트너의 명령에 따라 좌측으로 방향전환 후 보행을 계속하였다. 이미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안내견이 파트너와 협력하여 장애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안내견은 보행하는 동안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과 자신의 주변에 놓은 접근 가능한 음식을 거부해야 하며 움직이는 물체나 특히 동물에게 반응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데 위험을 초래하므로 스스로 반응을 자제하도록 훈련 받는다(이성

진, 2013). 따라서 유혹에 대한 억제력과 집중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찰 기준을 보다 폭넓게 정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물체, 풀냄새, 주변 소음, 공공시설에서의 파트너에 대한 집중도 등을 관찰해보았다. 일반적인 개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흠냄새와 동물친구들의 배설물 냄새를 맡으며 정보공유를 하는 등의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나 두 안내견은 관찰결과 96.11%의 유혹에 대한 억제력 및 집중력을 보였다. 경력이 많은 참여자 A의 안내견은 주변 사람이나 소음, 냄새 등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고 파트너와 협력하였으나, 아직 경력이 짧은 B원장의 안내견은 보행 중 흠냄새와 풀냄새를 가꿈 맡거나, 조금 떨어져서 동영상 촬영하는 연구자를 한 번씩 돌아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파트너의 하네스 당김에 따라 이내 보행에 집중을 하여 보행을 하는데 위험이 되는 부분은 없어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선 파트너와의 협력 훈련과 명령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B원장은 안내견을 이용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희미하게 형체는 보이는 정도의 저시력을 갖고 있어 안내견에게 어느 정도 허용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 편의점이나 약국처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파트너의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등의 집중력은 뛰어났다.

안내견 보행의 마지막 관찰 부분인 지적 불복종은 진행해서는 안 되는 환경이나 물체에(통과가 어렵거나 좁은 장애물, 자동차 등) 파트너가 오판하여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거부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이성진, 2013). 관찰을 진행하는 동안 지적 불복종 상황은 총 2회 관찰되었다. 첫 번째 상황은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중간지점에서 공사 진행 관계로 가로막혀 있었다. 안내견은 보행을 하다 멈추었고 파트너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하네스를 이용하여 진행 명령을 했지만 안내견은 그대로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공사관계자가 다가와 파트너에게 상황을 이야기 하고 길을 안내해주었다. 파트너는 옆으로 방향전환 명령을 내렸고 안내견을 보행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상황은 무등산 등산로 보행 중 급커브 길에서 차량이 급하게 내려오다 안내견과 파트너를 발견하고 급하

게 정차한 상황이었고 안내견은 바로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보고 보행을 멈추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파트너는 차량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한 채 계속 직진보행을 명령하였지만 안내견은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 안내견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많았던 파트너는 안내견의 행동을 보고 장애물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방향 전환을 통해 보행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2회 모두 돌발 상황이었으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안내견의 지적 불복종 훈련이 평소 잘 되어 있어 상황을 잘 대처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공공시설 이용 면

안내견은 파트너와의 생활을 위하여 공공시설에서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받는다. 이런 공공시설 이용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운송수단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계단 사용에 대하여 관찰하였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 지점 및 목표물들을 잘 찾는지 관찰해 보았다. 첫 번째, 운송수단 이용에 대해 총 15회 관찰한 결과 버스, 택시 등의 승하차 관련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고,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는 짐차블록을 따라 잘 진행하였다. 또한,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 승차한 후 파트너가 앉은 자리의 발밑에 엎드린 자세로 하차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도 움직이지 않고 파트너와 100% 잘 협력하는 에티켓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안내견의 계단 이용은 계단 시작점의 첫 단에 안내견은 잠시 멈춰 서서 계단임을 파트너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계단을 보행할 때 계단 도중에서 멈춰 서지 않아야 하며, 계단참(계단과 계단사이의 공간)을 인지해야 하고, 측대로 보행하지 않고 직선으로 리듬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이성진, 2013). 관찰하는 동안 총 8회의 계단을 이용하였는데 8회 모두 계단을 찾으라는 명령에 따라 계단을 찾고 첫 단에

멈춰 섰다. 안내견은 계단을 찾고 칭찬 간식 보상도 요구하는 여유까지 보이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표지점 찾기 관찰은 파트너의 명령에 따라 약국이나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의 입구, 계단, 횡단보도, 지하철 매표소 및 개표구 등 평소 파트너와 생활하면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었다. 관찰 결과 총 32회 중 평소 파트너와 자주 가던 목표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여 이동 하였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하철역의 매표소와 개표구는 파트너 또한 길을 익히지 못한 장소여서 안내견도 목표지점을 찾기 힘들어했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목표지점 찾기는 93.75%의 성공률을 보였다.

3) 지역사회 주민 반응 면

지역사회 주민 반응 관찰은 안내견과 파트너가 보행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에 있었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가장 많은 반응은 47.45%를 보인 호기심 반응이었다. 보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호기심이 아닌 안내견과 파트너 주변을 지나치면서 한 번씩 눈길을 주며 걸거나 신기한 듯 바라보는 정도의 반응이었다. 두 번째는 무관심 반응으로 46.94%의 반응이었다. 안내견과 파트너의 보행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4.59%의 격려 반응이었다. 보행하는 안내견 옆에서 함께 걸으며 안내견에게 ‘열심히 해라’, ‘고생해라’ 와 같은 격려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02%의 거부 및 놀람의 반응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큰개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안내견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반응이 있었다. 나머지 안내견 보행에 대해 간섭과 방해할 하거나 직접 터치를 하는 경우는 관찰하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 관찰 결과 안내견에 대해 호기심과 무관심이 대부분이었다. 예전보다 안내견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주변 반응도 많이 바뀌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이나,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다 듣도록 어린 아이에게 안내견에 대한 교육을 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인 듯하였다.

2. 안내견 이용 경험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심층 면담 분석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관련 경험과 다양한 면에서의 삶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야하므로, 이 연구는 관찰기록을 바탕으로 하나, 단기간에 진행된 기록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안내견 분양 및 보행의 기능, 생활면과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면담 내용들을 진행 한 후 각 영역별 분석을 통해 범주화하여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1) 보행기능 향상과 이동의 자유 확대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에는 흰지팡이를 이용하거나 활동 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행을 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또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흰지팡이를 사용했을 때의 신체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외출하는데 대해 제약을 느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훨씬 잘 구축되어 있으나, 활동 지원사와의 보행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자유로움 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보행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으며 그에 따라 외출에 대한 빈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단독 보행을 할 때 흰지팡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보행을 하고 나면 목 뒤가 뻣뻣하게 굳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가는 거죠.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가야하니까. 그리고 보행 하면서 소리도 들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흰지팡이를 짚고 가면 여러 가지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안내견을 데리고 가면 그런 것들을 대부분 보완 해주니까 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죠.(참여자 A)

안내견과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안내견을 보며 관심을 갖고 먼저 도와주시기도 하니 보행하는 입장에서 훨씬 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참여자 B)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제가 97년부터 안내견과 함께하였으니 안내견 이용을 먼저 경험한 저로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느 면에서는 편한 점이 있었죠. 당연히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의사소통도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생활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장점이 단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라 도움을 청할 때 눈치도 보이구요, 자유스럽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가는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일이라 쉽게 청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주 다니는 길을 가거나 장소를 가는 건 길을 한 번 익히면 편하게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으니 안내견과 보행하고 함께하는 게 저에겐 훨씬 수월했죠.(참여자 A)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는 보통 가사에 도움을 주거나 이동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밤에 내가 편의점

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불러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데, 안내견은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보행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B)

안내견의 이용 방법과 보행기능에 대해서는 안내견 학교에서 매칭과 함께 안내견과 생활하고 적응하기까지의 도움을 주고 있다. 안내견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4주간의 훈련을 통해 평소 자주 다니는 길에 대한 적응, 새로운 길이나 장소를 익히고 싶은 경우나 안내견 관리에서 사후 관리까지 안내견과 함께 보행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이동성의 향상을 통해 생활 행동반경을 조금씩 넓히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내견 학교에서 2주간 훈련을 받고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또 2주간 받는데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처 방안 같은 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걷는 연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 현지에서 하는 훈련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받는 편이에요. 평소에 활동하는 생활 반경이나, 가고 싶었던 곳들을 교육사님이 다 알려주세요. 집 주변에 뭐가 있고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주변 운동시설 공원 등을 다 숙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시거든요. 몇 발자국 걸으면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교육이 되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없더라도 안내견하고 같이 그 장소를 다닐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가고 싶은 곳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참여자 B)

안내견과의 보행에 대해서는 두 연구 참여자 모두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

다. 흰지팡이를 이용하거나 독립보행,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보행을 하는 것과 비교해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보행을 할 수 있으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보다 외출하는 횟수도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보행 기능과 이동성의 향상으로 낯선 환경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교통의 접근도 용이해져 행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기억은 우리 안내견이 처음 갔던 길을 다 외워서 집까지 되돌아오는 길을 알아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정말 그 만족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았어요. 물론 가끔 실수도 하죠. 하지만 만족도가 높을 때가 훨씬 많습니
다.(참여자 A)*

저 같은 경우는 조명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밤에는 가게의 조명 등을 보고 들어가거나 위치를 찾지만 오전이나 낮 시간 같은 경우는 가게를 찾는대거나 입구를 찾는 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안내견과 함께 보행을 하면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이나 장소는 잘 알기 때문에 위치까지 저를 안내해 주거나 문을 찾아주기도 해요. 횡단보도나 계단을 찾을 때는 아주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내견과 보행하는 건 혼자 보행할 때 보다 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B)

2) 라이프 스타일의 긍정적 변화와 심리적 안정감 향상

안내견의 이용은 시각장애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면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즐겨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진행할 수 있

게 되었고, 단조롭던 생활이 역동성 있는 삶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약속이 잦아지고, 카페를 자유롭게 다니며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보행과 이동성의 향상으로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인 면에서도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보다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안내견을 수시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일과가 규칙적인 스타일로 변하였고 훨씬 더 부지런해지는 등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에는 체육시설을 갈 때도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이제 안내견과 생활하다 보니 같이 걸어가게 되고,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가는 길에 공원도 들러 산책도 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공원을 산책하는 일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카페가고 싶으면 동네 카페에도 자유롭게 아무 시간이나 같이 가기도 하고. 제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참여자 B)

건강관리 면에서 참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안내견이 없을 때는 내가 산에 가기 싫으면 그냥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안내견도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기도 하고 심심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귀찮아도 안내견 때문에라도 가는 거죠. 그로 인해 내 몸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A)

이제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털 관리도 잘 해줘야 하고, 털 빠짐이 있으니 청소도 하루에 세 번씩 하게 되고. 밥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산책도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해요. 이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해줘야 하니, 제 생활 자체가 이제는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삶으로 조금 변한 것 같아요.(참여자 B)

안내견과 함께 하는 삶은 심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한다는 결과가 있다.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성까지 증대시켜주며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안내견과 함께 하는 시각장애인에게서도 안내견과 함께 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혼자 단독으로 보행을 하는 것보다 안내견과 함께 하는 보행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큰 의지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돌출 장애물이나 움직이는 장애물들을 피하거나, 횡단보도, 계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외출까지 꺼려 했던 것이 이제는 안내견을 의지하면서 자유롭게 보행하며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안내견과 협력하며 지내다 보니 서로 원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안내견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안내견이 친구나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흰지팡이 보행을 할 때 주변으로부터 느끼는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고 안내견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성격 또한 외향적으로 변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견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안내견은 동반자나 또는 반려견으로서의 역할까지 함께해 주는 것 같아요. 외롭고 적적한 그런 삶이 안내견이 있음으로써 좀 더 어떤 재미있는 삶이 되니까요. 또, 안내견과 함께 하며 보행하는 것이 내 삶에 자신감을 주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에를 가고 싶다면 이럴 때 사람은 눈치가 보이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혹은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도 부탁하기 힘들지만, 안내견과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코를 골다가도 내가 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같이 나서 주거든요. 그런 면들이 아주 마음이 편해요.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안정감을 주

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며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껴요.(참여자 A)

흰지팡이 보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피한다든지 약간 좀 잔하게 본다고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좀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내견과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안내견을 보며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와주시니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B)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견이 있다는 거는 인터넷 미디어나 영화에서만 봤
 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안내견을 이용하는 여러 시각장애인분들에
 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고 들었어요. 외로움도 많이
 없어지고 생활면에서 자신감이 생긴다고요.(참여자 B)

제 안내견이 많은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길을 아주 잘 찾고 제 마음을 금방
 읽고 잘 따라와 줄 때는 그 만족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자랑의 원천이
 되고 그러면서 저의 자존감 또한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참여자 A)

안내견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서로 교감이 되잖아요. 안내견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습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안내견도 제가 원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먼저 나서 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우리가 아주 마음이 많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로 느껴지면서 저
 에게 큰 존재감을 주죠.(참여자 A)

3) 사회 참여 활동 증진

안내건을 이용하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편의를 누리고 다른 사회 내의 구성원과 행동을 교환하며 관계를 맺는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약국, 편의점, 식당, 백화점 등의 편의 시설이나, 병원,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또는 대중교통 등의 운송시설들을 이용해야 할 때는 가족이나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이용했거나 아니면 도움받기가 부담스럽거나 혼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사회 시설들의 이용을 자제하고, 소극적으로 지내다 보니 자동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는 등 사회와 멀어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안내건과의 보행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내건은 훈련에 의해 어떤 장소의 입구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위치, 지하철의 매표소나 개표구까지 안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시설의 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파트너의 발밑에서 얌전히 기다리는 에티켓도 갖추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하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내건과 함께 보행을 하다 보면 먼저 다가와 안내건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대인관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전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내건과 함께 지하철도 자주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까지는 계단, 매표소, 개표구,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내건이 모든 걸 잘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

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에는 항상 제 발밑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에게 방해를 한다거나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요.(참여자 A)

안내견과 함께 있으니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길을 모르거나 도움
 을 청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기가 참 쉬워졌죠.(참여자 B)

안내견과 등산을 하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내견에게 먼저 격려의 말을 해
 주곤 하죠. 그러면서 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죠.(참여자 A)

안내견을 이용하기 전에는 카페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안내견과 함께 쉽게 이용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길뿐만 아니라
 압구도 잘 찾아주니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 시설도 안내견과 함
 께 하면서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어요.(참여자 B)

4) 지역사회 주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

1999년 4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
 해서는 안 되며,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로 그동안은 이 법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고 안내견에 대하여 관심 밖
 의 일로 여겨지며 우리들의 인식과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기사들을
 보면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안내견과의 출입을 거부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다.

제가 초창기 때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종점을 알고 있어 택시를 타고 따라가 기사에게 따진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광주에 대형 마트가 새로 생겨서 찾아갔는데 안내견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내견에 대한 그런 기본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기를 부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참여자 A)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거부를 많이 당하다 보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설명을 드려도 안된다고 하시고, 특히 광주권이나 도시권은 좀 괜찮은데, 시외나 시골 쪽은 더 잘 모르시더라고요. 과태료 이야 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참여자 B)

한 고급 식당을 방문했는데 절대 안내견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설명을 했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사실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저를 반기지 않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게,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상식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안내견이 제 발밑에 압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참여자 A)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안내견과 함께 보행하는 도중에 안내견의 덩치가 있다 보니 무조건 소리를 지른다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개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를 하긴 하지만 무작정 안된다고 하시거나 길거리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 그런 게 좀 힘들긴 하죠.(참여자 B)

제가 구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식당 같은 경우 위생 교육을 할 때 안내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제가 거절당할 때마다 직접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계속 말이 나와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B)

하지만 우리 사회도 안내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21대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고 있는 안내견의 국회 출입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게 되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인식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 참여자 또한 예전에는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로 식당에서 거부당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안내견과 보행을 할 때도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안내견 보행 시 만지거나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많이 인지하고 있고, 식당이나 마트 등 편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안내견에 대해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어가고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 듯하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정말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확실히 달라진 거를 느껴요. 지금은 택시나 버스를 탈 때도 거부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법적인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숙박업소 이런 곳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참여자 A)

요즘은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예요. 도움을 청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도움을 청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안내견과 같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도와주는 게 확실히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뀐 게 느껴져요.(참여자 B)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입마개 문제나, 식당 출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100% 어떻게 다 한꺼번에 바뀌겠어요. 조금씩, 점점 바뀌는 거죠.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참여자 A)

요즘은 확실히 안내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안내견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내견임을 알고 나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참여자 A)

그런데,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친근함이 불편할 때도 있긴 해요. 자주 다니는 동네 사람들을 안내견이 알다 보니 주민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거나 말을 걸면 안내견이 반가워하면서 집중력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반가워도 가끔은 모르는 척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시킨다면 안내견을 만져봐도 되냐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런 건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변하기 하였지만 가끔은 조금 도가 넘칠 때가 있죠.(참여자 B)

5) 안내견 이용의 제한점과 남은 과제

안내견을 이용한 보행과 생활은 시각장애인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안내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동안 많은 면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람의 마음이 가끔 헤이해지듯 안내견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보행 중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풀냄새를 맡거나 자주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응하거나 피를 부릴 때도 있다고 한다.

안내견은 내비게이션이 아니기에 새로운 길이나 장소를 직접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파트너가 먼저 새로운 길을 익히고 장소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안내견과 함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습득을 한 후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내견과 함께하는 파트너의 책임감 유무이다. 호기심이나 사전 연구 없이 무작정 안내견을 분양받아 생활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안내견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책임감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내견의 분양과 양성은 대부분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내견학교의 훈련사들은 다년간의 훈련과 경험으로 좋은 안내견을 분양시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10년 넘는 경력직 베테랑 훈련사분들이 회사의 퇴사 규정에 의하여 너무 일찍 퇴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경력이 짧은 훈련사보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훈련사분들이 다년간의 경험으로 더욱 더 훌륭한 안내견을 양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른 퇴직으로 좋은 전문 인력들이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경험과 경력이 많은 훈련사분들이 후배 양성을 위해 더 오랫동안 훈련 기술을 교육한다거나, 안내견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선은 훌륭한 안내견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건 바

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안내견이 내비게이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가자고 하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안내견과 제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해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안내견이 기억을 해서 명령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번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게 한계점인 것 같긴 해요.(참여자 B)

안내견 파트너인 제가 그 길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만큼 가면 뭐가 있고 얼마큼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꼭 안내견하고 가면 좌우에 뭐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거든요. 내가 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내견을 주도하는 거지 안내견이 알아서 길을 찾아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서 안내견에게 인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죠.(참여자 A)

안내견도 가끔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점점 티를 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훈련을 잘 시켜줘야 해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 안 들어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피를 부릴 때가 있어요.(참여자 B)

저는 다른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안내견을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죠. 개를 얼마나 예뻐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상에 젖어 있어요. 안내견은 내비게이션인 줄 알죠. 안내견을 분양받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분양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안내견학교에 연락해 보니 분양이 많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보통 3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잘 공부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참여자 A)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안내견은 털 빠짐이 있어 하루에 두 세 번은 빗질을 해줘야 해요. 집안 청소를 하루에 세 번씩 해야 되고요. 밥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놀아줘야 되고 산책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말로는 쉬운데 실제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책임감이 꼭 필요하죠. 안내견과 생활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B)

안내견을 분양할 때도 미리 인지를 잘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안내견을 분양받고 나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데리고 와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집에서 반려견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내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잘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참여자 A)

제가 안내견을 1997년 3월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안내견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가 많이 없었죠. 안내견 훈련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훌륭한 훈련사들이 많아 훌륭한 안내견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훈련사도 많이 없어 미국 안내견학교에서 온 분이 교육을 같이 해주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아보니 우리나라 훈련사들과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초기였으니까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경력들이 쌓이다 보니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훌륭한 안내견 배출을 위해 훈련사분들의 능력도 많은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A)

안내견 훈련사의 숙련도, 인적 자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좋

은 훈련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 안내견 분양과 훈련이 삼성 안내견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대기업은 정년이 짧다 보니 50대 초반에 정년을 하는데, 그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일찍 퇴직하시는 거예요. 현재 안내견 분양은 대부분 삼성 안내견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전문 인력들은 국가적으로 따로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력과 경험 많은 훈련사가 있어야 안내견과 저 같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이 더욱 편해지는 거니까요.(참여자 A)

V. 논의

이 연구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의 전형적인 일과를 추적, 관찰함으로써 안내견 보행이 기능적인 면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와 안내견 보행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안내견과의 협력관계가 시각장애인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편견의 변화 등을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삶에 긍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내견 이용의 기능 및 지역사회 주민 반응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내견 보행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한 분야는 직선보행과 방향 전환, 파트너의 명령에 따른 반응, 장애물 인지와 집중력, 그리고 지적 불복종에 대한 것이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파트너와의 보행 시 직선 보행뿐만 아니라, 돌출 장애물이나 움직이는 물체, 지나가는 사람들, 인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명령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 전환을 하며 보행을 하였으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길을 보행할 시 좌측으로 이동하여 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인도가 끝나는 지점이나 횡단보도 앞, 공공시설 입구나 계단 등에 위치한 연석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멈춤으로써 시각장애인 보행의 안정성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내견의 보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집중력이다. 집중력의 유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안내견은 보행하는 동안 주변의 냄새나 소음, 움직이는 물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을 자제하고 파트너인 시각장애인에게 집중하도록 훈련 받는다. 관찰 결과 안내견은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정도 및 훈련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과의 협력 경험이나, 안내견에 대한 관대함의 정도에 따라 안내견의 집중력은 조금 차이를 보

였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안내견 모두 파트너의 명령에 따라 행동이 쉽게 교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상황 등에 대해 파트너가 오판하여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거부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지적 불복종 부분에서는 관찰에 참여한 안내견 모두 잘 훈련된 모습을 보였다. 횡단보도 보행 중 만난 공사 진행 위치에서의 대응과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에 대하여 안내견은 지적 불복종의 신호를 보냈고 시각장애인은 그에 따라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었다.

안내견 보행 면을 살펴본 결과 안내견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연석 인지, 방향 전환 기능 등이 시각장애인의 이동의 속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보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내견 보행의 기능 중 공공시설 이용 면을 살펴본 결과는 잘 훈련된 안내견과의 보행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 안내견은 연석과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승차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인지할 수 있게 하였고, 운송수단 등에서의 에티켓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하철 매표소와 개표구 입구 또한 파트너의 명령에 따라 쉽게 찾으며 공공시설 이용을 돕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외 편의 시설인 약국이나 편의점, 카페 등에 대해서도 평소 자주 방문하며 위치에 대하여 잘 훈련된 경우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안내견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셋째, 안내견과의 보행 중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일은 드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지 반응 중 가장 많은 경우는 호기심 이었다. 보행을 하는 모습을 신기하듯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내견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

부분이였다. 그다음으로는 무관심 반응이였다. 호기심 반응과 무관심 반응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 외 안내건을 향해 격려의 말을 건네는 반응이 조금 있었으며, 모퉁이 보행 중이나 편의시설 입구 등에서 갑자기 나타난 안내건에 대하여 놀라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최근 미디어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안내건에 대하여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기에 안내건의 역할이나 에티켓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시각장애인과 안내건에 대하여 배려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동안 느낄 수 있었고, 안내건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터치하는 모습은 전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건 관련 경험과 다양한 면에서의 삶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한 결과이다. 면담 결과 다음 다섯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안내건의 이용은 시각장애인의 보행기능과 이동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흰지팡이 보행 중 겪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활동 지원사와의 보행에서 느낄 수 없는 심리적 자유로움을 안내건과의 보행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찰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안내건의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 등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기능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면서 외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대중교통이나 편의 시설의 이용 등이 용이해 지면서 생활 행동반경은 자동적으로 넓어지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안내건 학교를 통하여 접했던 안내건 분량관련 훈련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 등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안내건의 이용은 라이프 스타일의 긍정적 변화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안내건과의 보행으로 이동성이 향상되면서 단조롭던 생활이 역동성 있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취미생활이나 약속,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며 훨씬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안내건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되고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내건과의

보행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서 안내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고 안내견에게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내견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즉, 안내견과의 생활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안내견의 이용은 사회 참여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안내견을 이용하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편의를 누리고 사회 내의 구성원들과 행동을 교환하면서 관계를 맺는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편해지면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아졌음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넷째, 안내견 이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5년째 안내견 보행을 하고 있다는 연구 참여자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내견이 식당이나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의 내용을 대부분 알지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거부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이 법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내견의 국회 출입에서부터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마트나 식당 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안내견에 대한 기본 정보나, 안내견을 대하는 태도,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나 편견들에 대한 관심들이 나비효과처럼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고, 과거에 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뚜렷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느끼며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안내견의 이용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느

정도 제한점과 개선점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안내견은 내비게이션이 아니기에 안내견과 함께 보행을 하고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훈련과 협력이 필요하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의 파트너십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무엇보다도 파트너인 시각장애인의 책임감은 안내견과의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안내견은 생명체이기에 꾸준한 관리와 관심을 갖고 지내야 하므로 안내견의 분양을 쉽게 결정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훌륭한 안내견을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기술과 인력들이 이제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내견학교가 기업 소속이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훈련사들이 회사 규정에 따라 일찍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오랫동안 충분히 안내견을 양성하고 후배들에게 훈련기술을 전해 줄 수 있는 인재들이 너무 일찍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이런 부분이 꼭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내견 이용연수의 차이가 큰 참여자 A, B의 안내견과의 협력관계나 기능면을 살펴보았을 때 참여자 A와 안내견의 협력관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으며 안내견을 다루는 면도 노련했고 안내견도 흐트러짐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 보행중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집중력이 뛰어났으며 주변의 소음이나 장애물 등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고 파트너의 발밑에서 얌전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참여자 B의 안내견은 집중력 면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행하는 중에 촬영을 하고 있는 연구자를 자주 되돌아 보거나 잠시 멈춰 서서 풀냄새를 맡고 다른 반려견들의 체취를 맡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자주 다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났던 사람들에게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 반응에 대해 면담한 결과 참여자 B는 빛이나 희미한 형체 정도는 보이는 시력을 갖고 있고 온전히 안내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는 안내견의 이런 행동들을 허락하며 지낸다고 하였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안내견 이용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 A에 비해 안내견과 함께 한 경험 영역이 아직은 좁은 편이었기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교는 조금 부족하였다. 그 밖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경험 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내견과의 유대관계나 심리적 안정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안내견 보행은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보행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재영(2009)의 안내견 이용 전후의 삶을 비교한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이용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만, 정재영(2009) 연구에서 지적한 안내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 안내견 양성과 이용에 관련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선 현재에는 조금 개선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러 이슈들에서 제기된 안내견 관련 문제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인식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안내견 양성에 대한 국가적인 뚜렷한 정책은 부족하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안내견 양성을 위한 안내견 학교의 훈련 기술이나 경력 있는 훈련사들이 많아지면서 훌륭한 안내견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내견에 대한 홍보도 많아져 안내견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아지고 안내견을 분양받기 위해 보통 3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안내견의 긍정적인 기능을 알고 안내견 보행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무엇보다 안내견 학교에 대한 시스템의 정비, 투자,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수 외(2021)의 연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수에 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현재 안내견을 분양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많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지원으로서 안내견 양성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안내견 보행 가능성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내견 보행과 인식에 대하여 탐색하고 분석한 이은희(2021)의 연구에서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안내견 보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삶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분양의사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실제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안내견 보행이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관리 면과 책임감이 제일 필요하기에 안내견 보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내견 양성과정을 거쳐 훈련된 안내견과 파트너로 맺어진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직선보행, 방향 전환, 장애물 피하기, 연석 인지, 지적 불복종 등 보행의 기능적인 면을 잘 활용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공공시설,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동성 또한 향상시키게 된다.

둘째, 시각장애인은 안내견과의 보행이 이동성을 향상시키면서 역동성 있는 삶을 영위하게 만들고,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런 이유에서 안내견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안내견 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안내견에 대한 기본 정보나 역할에 대하여 많이 알려져 있었고, 안내견을 대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점들이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으로 안내견을 이용하는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환경적 장벽을 줄일 수 있는 보행 방법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안내견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내견 보행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에 국한되어 안내견 양성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체계적 관리 및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사회의 편견 및 차별에 대한 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 및 안내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광주지역에서 안내견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은 2마리뿐이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안내견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식당, 업소나 가게,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끊임없는 관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문제에 대해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내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이다. 실제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년간의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훌륭한 훈련사들이 이른 퇴직으로 안내견 양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일찍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안내견을 양성은 두 군데 중 대부분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내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시점에 좀 더 효

올적인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설 기관이 아닌 국가적인 지원과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져야 시각장애인의 장애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밑거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응렬 (2001).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영수, 윤동경, 장원석, 윤승태, 이홍직 (2021).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167-171.
- 김영일 (2010). **시각장애인복지론**. 집문당.
- 소병철 (2019).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에 대한 윤리적 소론. **용봉인문논총**, 0(54), 163-192.
- 양승호 (2011). **시각장애인의 실내 독립보행을 위한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서울.
- 유석중 (2016). 안내견 보행.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s://www.youtube.com/watch?v=BWDRHGv6jyk>.
- 이성진 (2013). 안내견 보행. (재)정인육복지재단,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pp. 311-340).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미용 (2002). **형태인지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울.
- 이은희 (2021). **인간-동물 유대 기반 안내견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임안수 (2010). **시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임안수, 정광윤, 서인환 (1999). **신보행학 개론**. 서울:한국맹인복지연합회.
- 전가일 (2021). **질적연구; 계획에서 글쓰기까지**. 서울:학이시습.
- 정재영 (2009).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이용 전후의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조성재 (2013). 보행의 역사적 개관, (재)정인육복지재단, **시각장애인보행의 이론과 실제** (pp. 3-33). 서울: 시그마프레스.

홍하일 (1996). 맹인 안내견에 대해서(동물은 내 친구). **대한수의사회지**, 32(4), 258-263.

나무위키, 안내견 품종, <https://namu.wiki>(2021.06.12)

다음 백과사전, 안내견이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870#1931242831>(2021.06.12)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http://www.moleg.go.kr>(2021.06.12)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https://mydog.samsung.com>(2021.06.12)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2021.06.12)

Li, K., Kou, J., Lam, Y. Lyons, P., & Nguyen, S. (2019). First-time experience in owning a dog guide by older adults with vision los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13(5), 452-463.